한 문장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분석

——문장의 의미론적 창조——

조 명 한
(서 울 大 學 校)

이 논문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창조되느냐를 도식화하자는 것이다. 창조라는 용어는 사람의 언어행동이라도 창조와 비창조의 과정으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다. 비창조적 행동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양식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Wickelgren (1969)이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받아드린다면, 예컨대, 생성문법의 도구는 필시 비창조적 행동의 계열을 위한 것이다. 가령 앵무새가 통사론적으로 잘 구조화된 말을 한다는 사실에서 앵무새가 창조적인 언어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터이다. 나아가서 두 손을 번갈아 휘저으며 걷는다든가 어떤 음운의 계열순서로 친숙한 단어를 발음한다든가 따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어떤 의미 있는 한 문장을 내어놓는다든가 혹은 그것을 지각하여 깨닫는 의사소통은 창조적인 행동이다. 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에 있어서 언어의 창조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지닌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연구접근은 문법성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와는 독립적으로 어떻게 의미충만해지느냐는 물음이다. 성인의 토박이라 하더라도 일상시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면 비문법적인 문장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그 비문법적인 언어표현으로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의 관심은 이들 비문법적인 문장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시켜 분석하려는 것이다. 뿐더러 왜 비문법적이냐를 설명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제안하려고 하는 문장 창조의 꼴(model)은 언어성과(performance)를 위한 꼴이 아니고 오히혀 언어능력(competence)에 대한 분석이다. Langue와 parole를 일반적으로 구별하여 langue를 사회가 갖는 명령성, 구속력 및 강제성의 형식으로 보고,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특징지운다. 이런 뜻에 있어서의 langue를 이해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과제가 아니다.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본질이 아니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주체 안에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때 음의 표현이나 변화는 심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시 Chomsky (1957)의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의 연구접근은 표면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면구조에 관한 것이다. 변형이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론적인 해석이 내면구조의 법칙에 타당할 것이다.

요약컨대, 우리의 물음은 언어사용자가 문장을 의미론적으로 창조하는 꼴에 관해서다. 이 꼴에 필요한 첫번째의 가설은 **한 문장은 언어사용자의 특정한 의도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산물로서의 언어는 구상적인 측면(Gebildeaspekt)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용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측면(Funktionsaspekt)을 지니는 것이다. 언어를 기능화하게 하는 것이 언어사용자의 의도이다.

심리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반응 혹은 행동을 하게 하는 심적인 동기과정을 인정한다. 언어행동 역시 그 동기를 전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선택된 의도라는 어휘는 창조한다는 함축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차라리 동기적인 경향성(disposition)을 일컫는 것이다. 동기라는 용어를 회피하는 까닭은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외현적인 행동 즉 언어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가령 아동이 언어학습을 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동기를 거기에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Kainz (1962)에게 있어서나 Jaspers에게 있어서나 언어는 소리가 대상을 지향(Intention)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적인 음성은 의미가 녹아 들어가 있는(verschmelizierend) Lautbild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선적으로 언어사용자의 의도를 첫번째의 가설로 삼는다.

두번째의 가설은 **이 의도를 관념형**(*a pattern of idea*)**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가설의 특징을 두 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언어 이전에 생각 혹은 관념이 있다는 통속적인 가정과의 비교이다. 실제로 심리학사에서 보면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구명하려는 많을 노력들이 있었다. 이들 노력들이 이론적인 공헌에 있어 오늘날 공허하게 된 까닭은 논리의 법칙과 사고의 역학적 법칙과는 직선적인 관계가 없다든가, 혹은 사고는 단어의 조작과 더불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든가 따위의 결론 때문이다. 그리하여 의미와 관념, 심상 없는 사고 (imageless thought) 등의 개념들은[1] 이제 심리학의 지식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는 형편이며 언어는 사고과정과 독립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오류는 언어단위 하나 하나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심상이라든지 다른 심적 과정을 분석한 나머지 그 상응물을 관찰하는 데 실패한 데에 기인한듯 싶다. 감각—운동 기능에 있어서 음소 하나 하나가 어떻게 계열순서로 연합되느냐 혹은 형태소나 단어별로 그 심상을 보고 받고 그들의 계열적인 연합의 기제로 문장을 설명하려는 따위의 시도가 그 예들이다. 우리는 언어사용자의 의도를 한 관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한 문장이 이미 하나의 관념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관념형의 가설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이 관념의 성질이 막연한 통채로의 전체 (diffuse

---

[1] 이들 계열의 연구들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고는 의식을 통해 흐르는 관념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상의 의미를 대표한다.

Ganzheit)라는 것이다. 이 전체성은 복합적인 것(Komplexität)이고 energia로 가정되어야 마땅하다. 언어를 energia로 규정하고 있는 가설은 쉽게 문헌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Humbolt, 1836, Kainz, 1962 참고). Werner (1954)에게 있어서 소리는 당초 상모적인 소리(Lautphysiognomik)이며 Piaget (1955)에 의하면 아동의 언어는 자아중심적이며 통채로의 혼합성(syncrétisme)이다. Energia라는 개념은 역동적인 성질을 내포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흐름은 역학적인 장의 힘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에로도 흘러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부분 부분들은 서로 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성질은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즉 한 의도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내용이 같은 문장을 언어표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러 형식으로 표현된 동일한 관념은 동일한 반응을 상대방에게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가설은 문장의 창조에 있어서 언어심리학적인 단위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언어심리학적 단위는 최고 문장이며 최저가 단어의 단위다.** 최고 단위를 문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어학에 있어서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규정이다. 그러나 최저의 단위가 음소나 형태소가 아니라는 것은 의미론적인 문장창조의 꼴이 갖는 특색이다. 이러한 단위규정은 Osgood의 도식(1963)에서 이미 논의된 바이고 이 의철과 조명한(1968)은 단어지각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의미충만성이며 형태소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었다.

이때 단어는 의미의 단위라기보다 의미체라고 함이 더욱 옳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요소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될 수 있는 한 개념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어는 문장이라는 전체 의미체 안에 있는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관념형을 energia라고 하였거니와 문장이 갖는 힘은 문맥적인 제약(contextual constrainment)의 힘이다. 이러한 가정은 "한 문장의 통사론적 구조는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도록 성군화한다"는 Miller (1965, p. 18)의 진술과 비교될 수 있다. 말하자면, 문장이 갖는 문맥적인 힘이 다르면 단어의 선택도 더불어 달라지는 것이며 동일한 단어가 각기 다른 문장에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제각기의 제약의 힘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뜻하여 지니는 것이다.

네번째로, 언어사용자를 위한 언어창조의 꼴은 **부호넣기**(decoding)와 **부호내기**(encoding)의 과정을 벌개의 과정으로 도식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표현의 과정과 언어이해의 과정을 가리킨다.[2]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가설에서는 **문장은 언어표현 과정**

---

[2] 의사소통에 대한 행동과학적인 접근방법에서 이들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의 두 과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 심리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입력은 자극이며 출력은 반응이기 때문이다. Osgood (1963)은 이 두 과정을 문장의 이해와 창조의 과정으로 이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두 과정 모두가 창조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의사소통의 단위로 본다면 자극을 수용하고 풀이하는 과정이 입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부호화하여 출력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ecoding을 부호넣기로 encoding을 부호내기로 거꾸로 번역하여야 좋을 것이다.

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즉 관념형인 문맥에서 최저의 단어 단위로, 그리고 언어이해 과정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즉 단어에서 문장으로 체제화되는 계층임을 진술한다. 네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Piaget (1955 p. 146)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한 마디로, 언어의 발달순서는 지각과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부분이며, 종합성에서 분석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예컨대 문맹의 성인의 글자 쓰기를 검토해 본 결과에 좇으면 띄어써야 할 단어들을 부치어 쓰거나——(le courier va pasé ma cherami)——혹은 단위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 단어를 띄어 쓰거나——(je fini en ten beras en bien for)——하였다.

사람이 창조하는 과정과 이미 만들어진 잘 구조화된 생산물을 분석하는 것은 크게 입장의 차이가 있다. 우리의 언어 창조에 대한 물음은 문법적인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규칙이 어떻게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기제를 묻는 것이다. 규칙은 결코 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적절한 형식을 약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 좌측 혹은 우측통행을 정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다. 문장에 대한 통사론적 규칙도 이와 같다. 지역마다 혹은 시간마다 여러 가지로 규약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문장의 생성이 단어가 연속적인 계열로 순서지워지는 Markov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비판된 바이다. 언어표현은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분절이오, 언어 이해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통합이다. 우리의 마지막 가설은 관념형인 energia의 이 분절과 통합의 과정이 다름 아닌 문장의 계층적인 체제화(organization)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네 가설들은 한편으로는 언어를 연구접근함에 있어 의미론적인 기제 혹은 법칙을 캐는 데 필요한 가설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바탕을 심성주의(mentalism)에 두고 있다. Katz (1964)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① 자연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자에게 있어 그의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기저가 되는 언어적 사실이 무엇이며, ② 어떻게 그가 그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③ 그 능력은 어떻게 획득되는가로 요약하고 있다. 언어적 사실의 신비 중 으뜸가는 신비는 무한하게 많은 문장들을 사람이 모두 접해보기 전에 그가 그 문장들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안다는 점이다. Miller (1965)의 개략적인 계산에 더하면 20개의 단어의 길이로 된 10^{20}의 문장의 수가 적어도 있을 수 있으며 아이가 이들 문장을 듣는 데 필요한 시간만도 지구의 연령의 천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해학적인 이유만으로도 언어에 대한 접근방법은 심성적인 견해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으며 의미론의 기틀 위에 서지 않을 수 없다. 문장들을 들어 기억하는 장치와 그것을 재생하는 기계적인 도식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언어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명한 (1969)은 심리학에 있어서 의미에 대한 심성적인 견해와 행동적인 견해를 비교하고 행동적인 견해의 모순을 지적하였었다.

언어창조에 대한 우리의 꼴은 차라리 Chomsky (1965, 1967)가 제안한 언어획득 방안(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과 비교함직 하다. LAD는 입력(input)으로 일차적 언어재료를 수용하고 문법적인 능력을 출력(output)한다. LAD의 내적 구조는 언어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s)이며 이 보편성은 형식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의 꼴은 특히 실체적인 보편성으로 구성된 LAD의 내면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라 보아야 옳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언어의 생성문법은 이상적으로 하면 중추적인 통사론적 구성자와 두 개의 해석적인 구성자인 음성학적 구성자 및 의미론적 구성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로서의 문법은 궁극적으로 음성적으로 표상된 신호를 의미론적 해석과 짝 지우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Chomsky, 1967, p. 9)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이때 의미론은 문법성에 맞는 언어의 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해시켜 준다는 연관에서 그 값을 치룬다.

하지만 의미론에 대한 우리의 시도는 문법성을 위한 꼴이 아니다. Mackay와 Bowman (1969)은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피험자들에게 한 나라 말의 문장을 읽히고 다른 나라 말로 그것을 번역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읽히어, 읽는 속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다른 나라 말의 번역된 문장을 번역되지 않은 문장보다 훨씬 빨리 읽었다. 또 다른 실험 사태에서는 의미 있는 문장에서 보다 의미 없는 문장을 읽는 데에서 더욱 많은 잘못을 내었다. 말하자면, 문장을 생산하는 데에 의미가 한 요인일 뿐더러 의미 자체가 말의 통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밝히어졌다. Taylor 여사(1969)는 여러 주제를 주고 그 주제로 말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사이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주제의 추상성 따위의 곤란도에 따라 문장을 생산하는 사이시간이 오래 걸릴 따름이지 만들어진 문장이 'simple—active—affirmative—declarative'하다고 해서 다른 복합적인 문장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 Perfetti (1969)의 실험에 좇으면 내면구조의 문장이라고 해서 표면구조의 문장보다 피험자들이 잘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모든 실험보고들은 문장에 있어서의 심층이라는 것이 언어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도 아니고 심지어 표면 구조의 문장이 단순한 내면구조의 문장에서 변형의 규칙에 좇아 생성된다는 가설까지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결론컨대, 말의 본질은 의미체요 문장은 이 의미의 구조다.

앞에 진술된 네 가설은 이러한 개념들을 전제하여야 그 값을 갖는다. 이제는 이들 가설이 갖는 주로 심리학적인 군더더기 설명을 덧붙이어야 할 터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가설은 언어표현 및 이해되기 이전의 심적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번째와 네번째의 가설은 언어행동으로 표현 및 이해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가령 우리는 흔히 특정한 자기의 의도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나름대로 오해하는 경우를 겪는다. 또 다른 경우에선 어떤 의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 자를 '오' 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Freud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위의 예와 같은 숱한 사례들을 들추어 무의식적 동기를 설명하였었다. 실상 병리학적인 수준에서나 정상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나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들 경험은 일상적으로 겪는 현상임으로 언어행동에서 의도라는 것을 가정치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그것이 바깥 세계의 대상이든 안의 세계의 대상이든——지향(의도)할 때 그 무엇에 대한 의미가 이미 그 기운의 싹이 튼 것이다.

매 마찬가지의 막연하고도 당연한 이유로 관념이라는 용어도 선택되었다. 예컨대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도 바로 자기가 표현한 문장이 자기의 속내 마음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했음을 알고 저으기 당황하게 된다. 이 미진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는 관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도식에서는 의도와 마음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Lewin에 의하면 요구나 의도가 있으면 심리적 장에 역동적인 에네르기가 생기며 심적 상태에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 언어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관념형이 energia로서 역동성을 갖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 이들 개념들이 언어현상을 더욱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체론적인 논쟁보다 관념형의 특성과 기능이 언어행동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심리학사의 고전적인 논쟁을 들추면 심상, 의식태(Bewußtseinslage), 무의식적인 결정경향 및 근육운동 등의 관념의 성질을 관찰하고 규정한 많은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 속에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 계열들의 연구가 실패한 까닭은, 순수 의식 심리학은 요소적인 감각재료를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탐구되면 곧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히 상징형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 요인들을 부정하게 되면 더욱 큰 혼란에 빠진다. 왜냐 하면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자극의 의미도 아니려니와 자극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지 그 자극을 전부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조 명한, 1969).

이 역설적인 모순을 피하려면 필경 논의된 관념의 성질을 막연하고 혼합적이며 분화가 되지 않은 통채로의 어떤 것(diffuse, synkretistische u. undifferenzierte Komplexqualität)이라고 규정치 않을 수 없다.[3] 이 개념화는 실제로 Krüger를 필두로 하는 전체주의 심리학의 입장에 선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의식의 전체내용의 총체적인 속성은 감정적인 음조를 지닌

[3] Chomsky가 지적하였듯이 언어에 대한 반응을 의미라고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행동주의와 마찬 가지로 심성주의에도 역설적인 모순이 있다. 연합(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속에 일어나는 관념을 내성 받으면 심상은 피험자마다 그리고 단어마다 다르다. 뿐더러 어떤 피험자들에게서는 심상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어떤 종류의 의식을 경험하였을 따름이다. 심하면 의식조차 보고하지 못하고 어떤 긴장상태가 고작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관념이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만을 야기케 한다. 하지만 더 큰 모순은 관념이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반응만이 있다는 가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관념을 내성으로 보고 받을 수 없는 전체성이라고 규정하여야 개념상의 그리고 방법론상의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그리고 마음상태(Zumutsein)로 경험된다" (Sander, 1930). 이 초현상적인 심적 실재는 심적 성향의 복합성의 구조다. Dilthey에서 빌려온 이 구조라는 용어는 영혼의 성향적인 특징으로 실현화하려는 역동성을 지녔으며, 그 자체가 총체성이고,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힘과 충동적인 경향을 갖춘 유기적인 체계를 뜻한다. 이때 힘은 주로 감정적인 전체경험에 있어 동질적인 전체성을 보존하려는 구조적인 경향이다. Lersch (1956)는 사람을 심층적으로 der endothyme Grund와 der Oberbau로 나누고 이 상위구조에 지각, 사고 및 언어 따위가 속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의 심층구조에 주로 충동이나 감정이 속해 있는데 충동의 힘은 삶에 대한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Sander (1924)에게 있어서는 이 힘을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점진적인 윤곽형성 과정이라고 규정짓고 '발생적 실현화' (Aktualgenese)라고 이름하였다.

전체주의 심리학의 이들 개념을 빌려 언어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들의 목적은 사람의 구조, 즉 미국 심리학의 용어로 퍼서낼리티를 이해하려는 것이었고 특정한 언어행동을 설명하려는 개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충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심적 기능 일반을 정립하는 힘을 가리킨 것임으로 마땅히 언어적 충동을 가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념형의 energia라고 불렀던 것의 특성은 통채로의 복합성의 질일 뿐더러 기분(Gemüt)과 같은 긴장과 운동으로 가득찬 전체성이다. Lersch (1956, p. 169)에게 있어서, "충동과 투쟁은 감정흥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감정흥분은 충동과 투쟁으로 짜여 있다." Sander에게 있어서는 감정적인 음조를 지닌 의식내용은 안정된 형태를 갖추려는 윤곽형성(configuration)의 힘의 과정이다. 이러한 연관에서, 언어가 본래 은유적인 것이라는 Jaspers의 진술은 이 힘의 전체성과 비교함직 하다. Humboldt (1836) 역시 아이가 언어를 터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스스로 발달하는 것이며 기분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관념이 윤곽형성되는가를 세번째와 네번째의 가설이 밝히어 준다. 언어창조의 골의 가장 급진적인 면은 부호내기 과정에서는 문장에서 단어로, 그리고 부호넣기 과정에서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체제화되는 단어와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Kainz (1962)에 기대면 단어는 의미 있는 소리의 상으로서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상의 조직이며 문장은 이해를 충족시키는 의미 단일성(Sinneeinheit)이다. 이런 뜻에서 단어든 문장이든 의미론적인 단위이다. 단어는 오히려 한 개념이고 문장은 개념들이 구체화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 및 「책/상」은 모두가 하나의 개념이므로 마찬가지의 단위이며 「당신/은」과 「당신/을」은 마찬가지 개념이되 오로지 힘의 꼬리 방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앞으로 자유연상 사태에서 형태소군의 연상구조를 실험적으로 밝히는 일은 흥미로운 주

제가 될 것이다.[4]

네번째의 가설은 이들 언어단위가 어떻게 의미체로서 '발생적으로 실현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막연하고 혼합적인 개념에서 구조화된 Gestalt가 형성되는 과정이 곧 윤곽형성 과정이며 의미충만화 과정이다.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단어가 어떻게 의미충만화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 논의한 바 있다. 그것은 내현적으로 자유연상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피험자는 자유연상 사태에서 "문맥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극어를 단서로 하여 반응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극어의 관념이 활동화하여 떠 오르게 한 것을 언어로 추상화한 것이다. 거꾸로, 추상화된 언어반응은 자극어가 어떤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환경을 보여 준다. 이런 의미에서, 연상어는 자극어의 문맥이며 연상강도는 이 문맥적 빈도다. 그리하여 이 문맥은 단어에 대하여 내재적(intensionally)으로 준거함으로 내포적 의미를 지닌다" (조 명한, 1969, p. 57).

그러나 이 자유연상의 기제를 문장창조의 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장의 의미충만화는 문맥적 제약의 힘으로 단어들이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직은 부호넣기와 부호내기 과정에서 문장이 계층적으로 어떻게 체제화되는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구해 보기가 힘들다. 뿐더러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과정이 다른지의 여부(Martin & Roberts, 1966; Perfetti, 1969)도 실험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가설은 의미론적 창조를 위한 것이며 심리적 현실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 개척된 발달언어심리학의 분야에서 이른바 언어 보편성에 관한 재료를 빌어 볼 수 있다. 아동의 최초의 언어는 한 마디 문장이다. "엄마"라든가 "오줌"이라든가 따위의 문장이다. 우리 모두가 이들 한 단어가 "어머니 나에게 젖 주세요" 혹은 "나 오줌 누겠읍니다"라는 의미체계임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그 이후에 생기는 두 마디 및 세 마디 문장을 그 유목에 있어 대개 연구자들은 pivot class(P)와 open class(O)로 나눈다. 이때 P와 O의 계열순서는 P+O나 O+P일 수도 있고 O+O일 수도 있다(Brown & Fraser, 1964; Ervin 1964; Braine, 1963; McNeill, 1966). "이거 아기"라든가 "아빠 빠이빠이" 혹은 "사탕 언니"와 같은 예다. P의 단어가 O의 단어보다 그 어휘빈도가 작다는 사실은 모든 연구의 재료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한 마디 문장도 O의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재료는 한 문장이 한 관념형이라든가 막연한 통채의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일듯 싶다. 두 마디 혹은 세 마디 문장에서 보이는 이분화 내지 삼분화는 그 관념복합의 분절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로도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Grozdev

---

[4] 「당신」과 「당신/은」 및 「당신/을」은 각각 그 연상구조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잠정적인 예언이다. 그러나 「당신/은」과 「당신/을」에 있어서는 그 단어에 뒤를 이을 수 있는 연상어들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문맥적 힘의 방향일 것이다.

[5] 즉 한 마디 문장은 아이의 욕구나 어떤 상태를 알리는 말이다. 이런 뜻에서도 복합적인 관념은 감정적인 음조를 띄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 재료에 의하면 러시아 아동들의 언어에서는 주어—목적—동사의 순위가 초기에 우세하다가 그 후에 주어—동사—목적으로 대치된다고 한다 (Slobin, 1966). Greenberg에 따르면 actor—action의 구성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언어 보편성이다. 이들 재료는 관념형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로도 분절 및 통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역시 그 흐름의 법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여 준다. 우리의 잠정적인 예언은 아마도 관념의 전체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리하여 잘 체제화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분절되리라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핵심적이냐 하는 것은 NP나 VP 따위의 문법적인 기능보다도 연상구조 등의 심적 기제로 탐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6]

언어 연구자들은 대개 통사론적 접근방법과 의미론적 접근방법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통사론적 구조가 어떻게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묻든지 한다. 예컨대 Katz와 Fodor(1963)에게 있어서는 문법적인 표지는 잘 구성된 연결체와 나쁘게 구성된 연결체를 구별하는 형식적인 차이를 표시하는 것이고 의미론적 표지는 순수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게끔 잘 구성된 연결체에게 개념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구성개념이 두 표지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미론의 구조는 통사론적 구조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점 이 논문에서 시도되는 의미론적 연구접근은 통사론의 구조에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기 보다, 지금껏 심리학의 탐구에서 벽에 부디치고 있는 사고와 언어의 관계성을 새로이 모색하고 그 터전에서 언어를 탐구하자는 것이다. 한 문장을 하나의 의미체계의 관념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첫째, 사고 과정과 언어 과정 사이에 일 대 일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두 과정의 요소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좋고 상응하지 않아도 좋다. 한 문장은 애당초 미분화된 전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와 순서가 바뀌거나 심지어 어떤 요소가 빠져 나가도 관념형과 문장내용은 서로 변화 없이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오늘날의 심리학 실험실에서 탐구되고 있는 요소와 요소와의 연합의 기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연상으로 어떻게 독립적인 한 단어가 의미충만해지느냐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부호넣기와 부호내기 과정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이 문맥적인 연관에서 어떻게 서로 의미충만해지느냐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선 부호넣기과정에서는 Hollingworth (1926)의 이른바 redintegration의 현상이 이 의미충만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그에 의하면 "복합적인 자극의 한 부분이 그 자체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

---

[6] 우리는 앞에서 귀절을 언어심리학적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생성문법은 일반적으로 phrase-structure grammar를 도식화는 것이며, 문장구조의 복잡성은 귀절의 immediate constituent로 나타나진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의 복잡성이 언어행동에 작용하는 요인이라는 실험보고도 있고, 아닌 보고도 꽤 많다. 그러므로 귀절 단위의 인정 여부를 확정짓기 곤란하다. 필자의 머리속만의 헤아림으로는 귀절은 문장의 분절 및 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군더더기일상 싶다. 마치 앞에서 형태소를 다루면서 「당신」「당신/은」「당신/을」에서 들추었던 예와 같다.

른 연관에서 재현되었을 때 이 세부가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 사태에 대해 이전에 보였던 온전한 반응을 일으킨다" (p.92). 이 현상을 redintegration이라 이름하였다. 이를 테면 한 아이가 안경을 낀 남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는 경우이다. 안경이라는 단일 요소가 전체 행동형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아마도 세부로 말미암아 전체가 의미충만해지는 까닭은 문맥의 잠재력이 환기됨으로써이다. 이 기제가 필경 부호넣기 과정에서 문장이 의미충만해지는 데 책임 있을 것이다. 근래 Horowitz(1969)는 짝짓기 학습 사태에서 이 redintegration의 기제를 연구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문맥의 힘을 묻지 않고 있다.

부호내기 과정에서 한 관념이 단어와 단어로 분절되는 과정은 Whorf(1959)의 결합의 개념에서 어떤 암시를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그에게 있어 결합은 연상과는 달리 오히려 연속의 개념이다. 그리하여 연속적인 중추에서 상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관념들의 문제다. 가령 "up"이라는 관념은 어떤 운동을 생각키워서 또 다른 뉘앙스를 갖추고 있는 "rise"로 옮기며 다시 "left"로 "carry"로 결합된다. "'결합'은 관념의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하다. 결합의 필수 기준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이라는 것이며……내게 있어서는 언어에 의해서 관념이 의사소통되게 되는 필연적인 부산물인듯 싶다. 결합은 의사소통의 원칙을 지키며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보편성이다" (Whorf, 1959, p. 36). 물론 심리학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 자유연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하지만 연속적 자유연상을 의사소통의 면에서, 더군다나 문장의 생성의 면에서 탐구한 이는 없다. 고전적인 관념과 관념의 연합의 문제는 실험실 안에서의 통제된 추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연상을 관찰함으로써 단어와 단어와의 분절 내지 통합의 체제화의 기제를 더욱 밝힐 수 있을 듯 싶다. 문장은, 다름 아닌 언어는, 이러한 심리적인 기제에 더해서 일정한 규칙의 형식을 갖추어 외현적으로 들어난 생산물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와 언어의 관계성에 대한 이 논문에서의 진술은 마치 언어 없는 사고는 있어도 사고 없는 언어는 없다는 명제를 맹목적으로 받아드린 것처럼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 이 논문에서는 말은 우리의 정신적 활동(Tätigkeit)의 기호적인 대표물임을 단지 진술한 것 뿐이다. 이런 뜻에서 말은 우리의 현실이며 사고는 언어적인 개념 실현이다. 지능 역시도 언어 없는 지능과 언어에 얽매인 지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언어적 지능"과 "감각-운동적 지능"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구분이 타당하다면 언어는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명령하며 정의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Kainz는 단어란 사고를 경제화하는 상징체계(das denkökonomische Symbolsystem)로 보았다. 언어는 사고의 결과로 고정되고 중개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말미암아 사고가 경제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사고의 짐을 풀어주는(Erleichterung) 기능을 한다. 따라서 "비로소 상징적인 사고야

말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고다. 상징의식 (Symbolbewußtsein)은 단지 언어가 있어야만 발달하는 것이다" (Kainz, 1962, p. 153).

언어가 있음으로써 사람은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바깥 세계를 표상하여 대표할 수 있다. 우리의 의미론적 언어창조의 끝에서는 통채로의 복합성이 언어실현화함으로써 한 관념의 윤곽이 분명하여진다. 그리하여 사람의 내적 경험의 세계가 그 형태를 드디어 현상적으로 드러낸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바깥 세계는 물리적인 대상이나 사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관념을 활동화하게 하여 분절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어떤 개념과 판단체계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심리적인 현실이며 정신적인 활동이다. 맹목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창조적이라 일컬었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라면 언어를 존재의 드러내짐(Offenbarwerden)으로 보는 Jaspers의 견해와 서로 견줄 만하다.

참 고 문 헌

李 義喆・趙 明翰『한 單語의 視覺的 體制化에 作用하는 要因들에 대한 分析』「韓國心理學誌」1968, 1, 5-13.

조 명한『단어내 연상요인으로서의 연상어 수와 연상빈도. 단어연상에 대한 상대적 거리 이론』「서울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 1968, 14, 255-292

조 명한. 연상적 의미와 우리말 연상사전의 작성.「新聞硏究學報」, 1969, No.6, 49-63.

Braine, M. "The ontogeny of English phrase structure: the first phase", *Language*, 1963, 39, 1-13.

Brown, R., & Fraser, C.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N. Cofer & B.S. Musgrave (Eds.),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63.

Chomsky, N. *Syntactic structures*. Hague: Mouton & Co. 1957.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Chomsky, N.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Hague: Mouton & Co., 1966.

Hollingworth, H. L. *The psychology of thought*. New York: Appleton, 1926.

Horowitz, L.M., & Prytulak, L. S. "Redintegrative memory", *Psychol. Rev.*, 1969, In press.

Humboldt, W. von.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Berlin. 1836.

Jaspers, K. *Die Sprache*. München, 1964.

Kainz, F. *Psychologie der Sprache* (Erster Band). Stuttgart, 1962.

Katz, J.J. "Mentalism in linguistics", *Language*, 1964, 40. 124-137.

Katz, J.J., & Fodor, J.A.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1963, 39. 170-210.

Lersch, Ph., *Aufbau der Person* (T. Aufl.). München, 1956.

Machay, D.G. & Bowman, R.W. "On producing the meaning in sentences", *Amer. J. Psychol.*, 1969, 82, 23-39.

Martin, E., & Roberts, K.H. "Grammatitcal factors in sentetnce retention", *J. verb. Learn. verb. Behav.*, 1966, 5, 211-218.

McNeill, 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6.

Miller, G. A. "Some preliminaries to psychoinguistics", *Amer. Psychologist*, 1965, 20, 15-20.

Osgood, C. E. "On understanding and creating sentences", *Amer. Psychologist*, 1963, 18, 735-751.

Perfetti, C.A. "Sentence retention and the depth hypothesis", *J. verb. Learn. verb. Behav.*, 1969, 8, 101-104.

Piaget, J.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Meridian, 1957.

Sander, F. Arbeits bewegungen. In H. Riedel (Ed.), *Arbeitskunde*. Leipzig: Teubner, 1924.

Sander, F. "Structure, Totality of experience". In *Psychologies of* 1930. Worcester: Clark Univer. Press, 1930, 188-204.

Slobin, D. I. "The acquisition of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In F. Smith & G.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6.

Taylor, I. "Content and structure in sentence production", *J. verb. Learn. verb. Behav.*, 1969, 8, 170-175.

Werner, H. *Einführung in die Entwicklungspsychologie*.

Whorf, B. L.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MIT Press and Wiley, 1959.